

2019년 10월 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 분쟁 피해 여파 부각 속 하락

ISM 제조업지수 47.8로 2009년 6월 이후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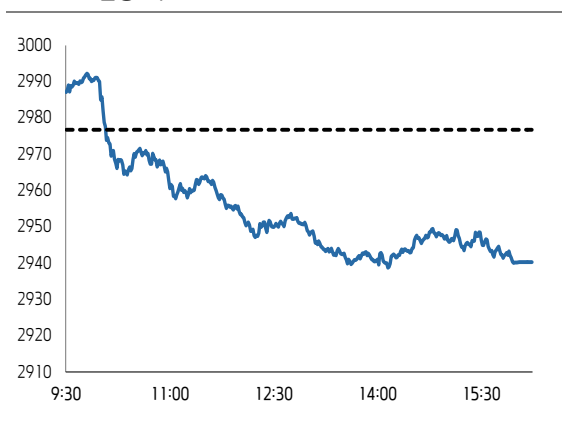
미 증시 하락 요인: 경기 둔화 우려 부각

미 증시는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이른 시일안에 결론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출발. 그러나 위축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전환. 특히 물류, 산업재, 에너지가 하락 주도. 더불어 국제금리 하락과 악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매물이 출회된 금융주도 하락하는 등 모든 업종이 부진(다우 -1.28%, 나스닥 -1.13%, S&P500 -1.23%, 러셀 2000 -1.97%)

지난 9월 초 하버드 CAPS/Harris는 63%의 미 국민이 관세 부과가 궁극적으로 중국 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 그럼에도 67%의 미 국민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는 나를 믿고 있다” 라고 주장.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과 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공화당 내에서도 무역분쟁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 전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무역분쟁으로 미국 농민들이 매우 힘들다. 이번에는 결론을 얻기를 희망한다” 라고 주장. 팜벨트 지역인 캔터키주의 상원의원이라는 점을 감안 농민들에 대한 정책에 민감. 이 외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지역 제조업 부진 등을 이유로 협상에 대한 압박을 주는 모습.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 증시는 상승 출발.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49.1) 보다 크게 위축된 47.8로 발표되는 등 제조업 침체가 확산. 이는 경기 침체의 막바지였던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특히 실질 GDP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72%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 세부항목을 봐도 고용지수가 전월(47.4)에 이어 46.3으로 발표되며 제조업 고용 불안 또한 이어짐. ISM은 이번 수치에 대해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냈고, 이번 달에는 속도가 더 빨라 졌다” 라고 발표. 이날 같이 발표된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 했으나, 기업들의 설비투자와의 관련이 깊은 비거주 건설 지출은 전월(mom -1.6%)에 이어 이번달에도 전월 대비 1.0% 감소되는 등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된 모습. 이 결과 미 증시는 하락.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고 10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이 크게 상승(39.6%→64.7%) 하는 등 온건한 통화정책이 부각되고 있어 장중 한때 하락 축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2.42	+0.45	홍콩恒生	26,092.27	휴장
KOSDAQ	632.10	+1.66	영국	7,360.32	-0.65
DOW	26,573.04	-1.28	독일	12,263.83	-1.32
NASDAQ	7,908.69	-1.13	프랑스	5,597.63	-1.41
S&P 500	2,940.25	-1.23	스페인	9,165.90	-0.85
상하이종합	2,905.19	휴장	그리스	861.50	-0.80
일본	21,885.24	+0.59	이탈리아	21,927.57	-0.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물류, 산업재, 에너지 업종 부진

아나로그디바이스(-1.75%), 마이크로칩 테크(+0.01%), NXP 세미컨덕터(-0.14%)는 키뱅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장 초반 상승 출발 했으나, 지수 부진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일부 종목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자일링스(-4.06%)는 무역분쟁으로 실적 둔화 우려가 높으며 투자의견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증권업종인 찰스스왑(-9.73%)은 온라인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있다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이 여파로 이트레이드(-16.43%), TD아메리트레이드(-25.83%)도 동반 급락 했다.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유니온퍼시픽(-3.72%), CSX(-3.25%)와 UPS(-3.35%), 페덱스(-2.70%) 등 물류 회사들이 급락 했다. 더불어 3M(-3.66%), 캐터필라(-3.12%) 등 산업재는 물론 엑손모빌(-2.35%), 코노코필립스(-3.21%) 등 에너지 업종도 부진했다. 한편, JP모건(-1.82%), BOA(-2.50%)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다만 US스틸(+3.29%)은 빅 스플래시 스틸을 인수해 스크랩 재활용 및 철강 생산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애플(+0.28%)은 팀 쿡이 아이폰 11의 초기 판매량이 강력하다고 언급하자 1% 넘게 상승 출발 했으나, 지수 하락 여파로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62%	대형 가치주 ETF(IVE)	-1.20%
에너지섹터 ETF(OIH)	-3.83%	중형 가치주 ETF(IWS)	-1.66%
소매업체 ETF(XRT)	-0.73%	소형 가치주 ETF(IWN)	-1.75%
금융섹터 ETF(XLF)	-2.11%	대형 성장주 ETF(VUG)	-0.99%
기술섹터 ETF(XLK)	-0.93%	중형 성장주 ETF(IWP)	-1.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9%	소형 성장주 ETF(IWO)	-2.04%
인터넷업체 ETF(FDN)	-2.04%	배당주 ETF(DVY)	-1.26%
리츠업체 ETF(XLRE)	-0.8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0%
주택건설업체 ETF(XHB)	-1.3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9%
바이오섹터 ETF(IBB)	-1.51%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0.98%	하이일드 ETF(JNK)	-0.23%
곡물 ETF(DBA)	+0.13%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0.68%	Long/short ETF(BTAL)	+1.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7.07	-2.30%	-4.11%	+1.74%
소재	356.28	-2.30%	-1.50%	+1.46%
산업재	639.20	-2.40%	-1.82%	+1.91%
경기소비재	939.96	-0.77%	+0.10%	+0.32%
필수소비재	627.61	-0.28%	+0.81%	+0.51%
헬스케어	1,033.33	-0.96%	-1.60%	-0.66%
금융	455.86	-2.08%	-1.62%	+3.44%
IT	1,401.34	-0.85%	+0.16%	+1.87%
커뮤니케이션	165.56	-1.02%	-1.28%	+0.42%
유틸리티	327.49	-0.30%	-0.13%	+1.86%
부동산	241.12	-1.02%	-0.83%	-1.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후 관망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494 계약 순매도 한 가운데 2.05pt 하락한 273.1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02.6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등이 알려지며 미-중 무역협상 기대 속에 상승했었기에 미 증시 장 초반 상승 요인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지수 둔화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신규주문이 전월(47.2)에 이어 47.3 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하회해 향후 수출 부진 가능성이 지속된 점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 나아가 홍콩 시위가 격화되며 중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테크를 비롯해 일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 KeyBanc Capital 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은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속에 애플이 상승세를 이어간 점도 우호적이다. 특히 팀 쿡이 아이폰 11 의 판매에 대해 '강력한 시작'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은 불가피 하지만,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4 일, 8 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10~11 일 미-중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제조업지표 둔화

9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49.1)은 물론 예상(50.0)을 크게 하회한 47.8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47.2→47.3), 생산지수(49.5→47.3)은 물론 고용지수(47.4→46.3) 등 대부분이 기준선을 하회했다.

8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mom 0.0%) 보다는 개선된 전월 대비 0.1% 증가 했다. 그러나 예상(mom +0.3%)를 하회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주거 건설지출(mom +0.6%→0.9%)가 증가한 가운데 비 거주 건설지출(mom -1.6%→-1.0%)은 여전히 감소했다. 특히 건강관리가 전월 대비 2.0%, 상업용 건물(mom -2.8%) 등은 부진했다. 다만 공장 부문 건물은 전월 대비 0.5% 증가 했다

애틀랜타 연은은 3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지난 주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국제유가는 장 초반 OPEC 의 원유 생산이 8 년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승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조업지표가 크게 위축되자 향후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다만, OPEC 관련 소식에 낙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여타 환율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제조업지표가 부진하자 약세로 전환했다. 한편, 드라기 ECB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 조치가 핵심이라며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높이는 발언이 있었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일본 국채 매입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하기도 했다. 그러나 ISM 제조업지수가 크게 위축되자 단기물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CME Fedwatch 는 10 월 금리인하 확률에 대해 전일(39.6%) 보다 크게 상승한 64.7%로 발표했다.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바우먼 연준이사, 블라드 총재 등의 발언이 있었으나 경제 및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금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62	-0.83	-6.41	Dollar Index	99.124	-0.25	+0.80
브렌트유	58.89	-0.61	-5.20	EUR/USD	1.0936	+0.34	-0.76
금	1,489.00	+1.09	-3.32	USD/JPY	107.71	-0.34	+0.60
은	17.302	+1.79	-7.12	GBP/USD	1.2309	+0.16	-1.43
알루미늄	1,740.00	+1.07	-1.28	USD/CHF	0.9927	-0.50	+0.73
전기동	5,686.00	-0.68	-1.63	AUD/USD	0.6705	-0.67	-1.41
아연	2,305.00	-3.07	+1.01	USD/CAD	1.3217	-0.18	-0.20
옥수수	392.50	+1.16	+4.74	USD/BRL	4.1574	+0.01	-0.18
밀	498.75	+0.61	+3.53	USD/CNH	7.146	+0.07	+0.56
대두	919.50	+1.49	+2.82	USD/KRW	1199.00	+0.23	+0.28
커피	101.35	+0.20	+2.22	USD/KRW NDF1M	1202.66	+0.38	+0.6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637	-2.76	-0.86	스페인	0.149	+0.70	+3.40
한국	1.495	+3.50	+4.80	포르투갈	0.171	+1.40	+3.20
일본	-0.149	+6.40	+8.50	그리스	1.344	+1.10	+2.70
독일	-0.564	+0.70	+3.60	이탈리아	0.855	+3.50	+2.40